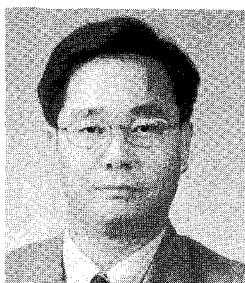


2003년 사료산업 동향 및 전망



홍 순 찬
(한국사료협회 기획팀장)

1. 배합사료 생산

2002년도 배합사료 생산량은 돼지콜레라 등 가축질병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및 아세안게임 등의 특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말까지 배합사료 총 생산량은 12,162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6% 증가하였고,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2002년 총 배합사료 생산량은 1997년에 이어 1천 5백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0월말 현재 품목별 생산량을 보면 양계용이 5.4%증가하였고, 양돈용이 8.1%, 기타 용도 사료가 34.8%로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낙농용 사료와 비육우용 사료는 0.9%, 1.3%씩 각각 감소하였다.

수년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해왔던 양돈업을 바탕으로 양돈사료가 크게 증가한 반면 쇠고기 수입이 자 유화되면서 비육우와 유우의 사육두수는 감소하면서 이들 사료생산량은 2001년에 이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배합사료 생산량은 양계사료와 양돈 사료 및 초식동물용 사료의 비율이 1981년에는 53:22:25로 양계사료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으나 1997년에는 24:32:44로 양계용 사료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가 최근에 다시 양계 및 양돈사료생산이 늘고 비육우와 유우등 초식 동물용 사료 비중이 줄면서 27:37:36으로 바뀌고 있다.

2003년도 배합사료 생산량은 지난해의 큰 폭 상승과는 달리 보합 내지는 소폭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수요측면에서 보면 국내외 경기 위축이 예상되

면서 내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공급측면에서도 지난해 축산물 가격의 하락과 사료곡물 가격상승으로 인해 생산비가 상승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양축농민들의 사육심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말 이후 환율이 강세로 돌아서고 사료곡물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배합사료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해지며 사육심리를 위축시키리라는 전망이다.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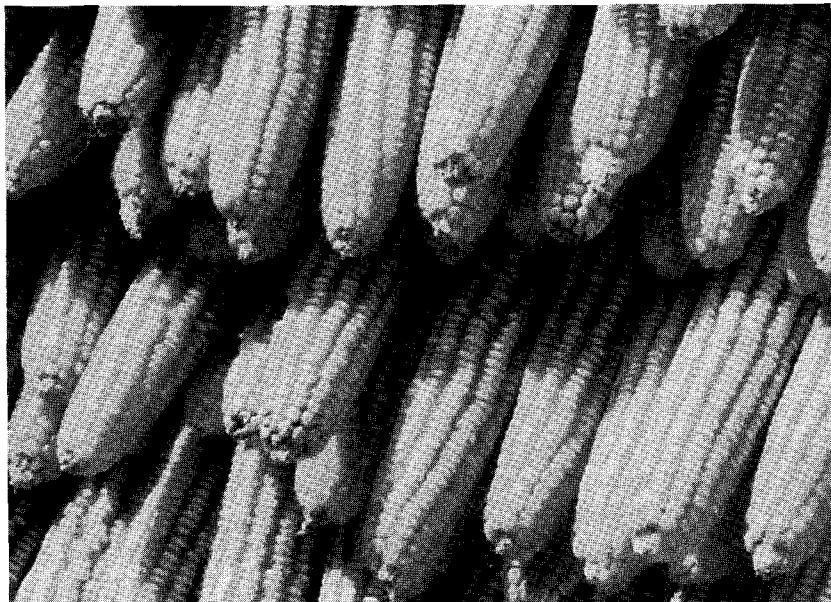


표1. 축종별 배합사료 생산실적

단위 : MT

구 분	2002. 1~10월 (A)	2002. 1~10월 (B)	누계대비 A/B(%)
양 계	육 추	282,072 (2.2)	270,143 (2.2)
	산 란	1,490,120 (11.6)	1,467,203 (12.1)
	육 계	1,419,176 (11.0)	1,280,296 (10.5)
	종 계	214,165 (1.7)	214,734 (1.8)
	소 계	3,405,533 (26.4)	3,232,376 (26.6)
양 돈	4,877,125 (37.8)	4,513,063 (37.1)	108.1
낙 농	1,456,522 (11.3)	1,470,114 (12.1)	99.1
비 육	2,256,179 (17.5)	2,285,023 (18.8)	98.7
기 타	891,713 (6.9)	661,705 (5.4)	134.8
계	12,887,072 (100.0)	12,162,281 (100.0)	106.0

라서 2003년의 축산업은 추가적인 입식이 어려워질 전망인 가운데 양적으로 안정을 도모하며 축산물의 제값 찾기를 통해 질적 향상을 추구하려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축산물에 이어 2000년 생우(生牛)까지도 수입되면서 축산, 사료산업이 정체기로 접어들자 그 동안의 사료 및 축산정책은 국내산업의 보호를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이제부터라도 개방화시대에 걸맞는 축산 및 사료정책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도 높아

표2. 단체별 배합사료 생산실적

단위 : MT

구 分	2002. 1~10월 (A)	2002. 1~10월 (B)	누계대비 A/B(%)
사 협	8,839,808 (68.6)	8,491,451 (69.8)	104.1
농 협	3,519,452 (27.3)	3,236,770 (26.6)	108.7
기 타	527,812 (4.2)	434,060 (3.6)	121.6
계	12,887,072 (100.0)	12,162,281 (100.0)	106.0

지고 있다. 즉 과거 국내 농업보호 논리하에 유지되어 왔던 고율관세제도에서 벗어나 기본 관세를 일본과 같이 무관세(無關稅)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료용 완두콩(Feed Pea)과 전지대두와 같이 고율관세로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도 사용을 자유롭게 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2. 국제곡물가격

2001년이래 지속적인 곡가(穀價)안정과 환율하락에 힘입어 국내사료업계는 상반기인 2월과 6월에 6% 내외의 가격인하를 단행하였으나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사료원료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환율마저도 상승세로 돌아서며 사료업계를 어렵게 하였다.

97년말 IMF 금융위기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던 사료원료 가격이 강세로 전환되고, 원화가치의 가격이 하락국면으로 전환되면서 배합사료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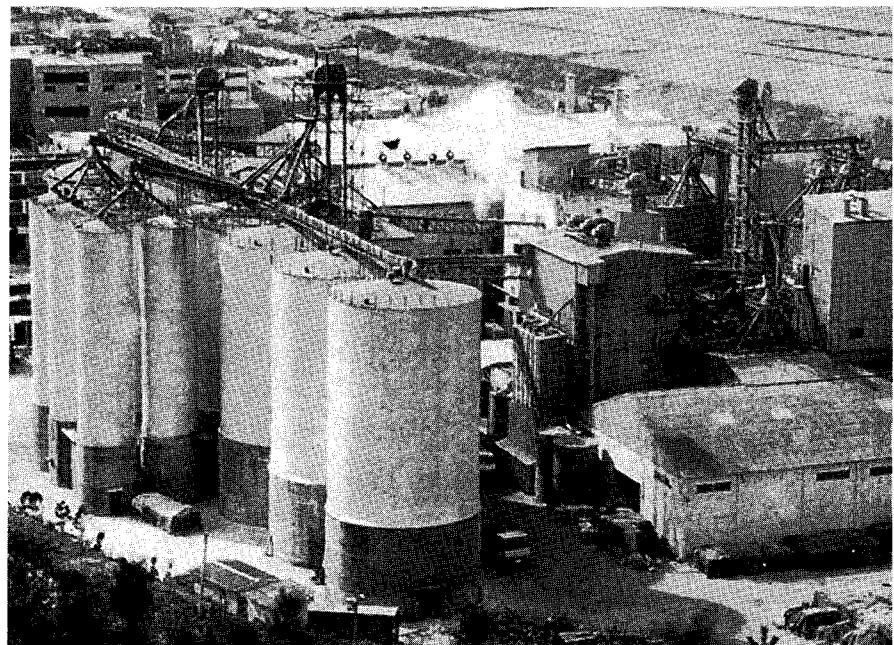
환율의 경우 연초에 1달러당 1,300원을 넘어서던 원화가치가 7~8월에 들어서는 1,100원대까지 하락하였으나 연말들어 다시 1,240 원대까지 상승하였다.

당초 별다른 영향

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던 엘리뇨현상이 9월 이후 세계 곳곳에 기상이변을 가져오면서 금년도 예외없이 엘리뇨의 악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제사료원료가격은 9월 이후 미산 옥수수가 재고감소 및 수요증가 예상에 따라 초강세를 보여온 아래 지속적인 강세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선박운임시세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하반기에 들어 미산(美產) 옥수수 가격이 C&F 135\$대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중국산 옥수수 가격도 미산 옥수수 가격의 강세와 중국내 옥수수 수출보조금 삭감 예상으로 옥수수 수출가격의 상향조정이 예상되면서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옥수수의 대체원료로서 사료가격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던 사료용소맥 마저도 최근들어 오페가 끊기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이 같은 사료용 곡물가격의 상승은 여



타 식물성박류 및 강피류 원료들의 상승세를 수반하여 대두박, 채종박, 소맥피 등 여타 사료용 원료들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최근 환율상승과 함께 배합사료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그 동안 국내 배합사료업계는 대두박 등의 대체원료로 호주산 루핀시드를 연간 35만톤이상 수입 사용해 왔으나, 연2년째 호주의 가뭄피해로 인해 공급이 절반 수준으로 줄고 가격도 톤당 170불대까지 상승한 가운데 공급마저 불안정한 상태이다.

배합사료 생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면서 여타 부원료(副原料) 가격이 상승하자 지난 수년간 저곡가(低穀價) 추세에서 가격경쟁을 벌여오던 사료업계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해도 환율하락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곡가상승은 상쇄시켜 나갈수 있었으나 하반기이후 환율마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자 불가피한 가격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사료원료 가격의 강세현상은 엘리뇨 등 기상악화에 의한 생산량감소가 주요원인으로 세계적인 식량부족이 거론되던 지난 97년

보다 오히려 더 낮은 주요곡물의 재고율을 기록하는 등 일시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인 추세전환으로 보는 견해가 높기 때문에 2003년 이후는 과거 저곡가 시대의 자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상황의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축농민들도 나름대로 사육두수를 적정규모로 유지하며 축산물 가격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산비를 최소화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사료업계는 사료업계대로 현재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사료원료의 효율적 구매와 비용절감을 통하여 고곡가시대(高穀價時代)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

배합사료 가격을 안정시키고, 축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모든 사료원료에 대해서는 일본과 같이 무관세(無關稅)로 힘이 마땅하나 우선 당장은 할당관세만이라도 확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현재 사료용으로의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대두를 사료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한편 관세가 30%로 여타원료의 0~2 %에 비해 크게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는 사료용 완두콩의 관세를 인하시켜 루핀시드와 식물성단

백질 가격의
상승 등 전반
적인 사료원
료 가격상승
에 따른 축산
물생산비 상
승을 견제할
수 있는 정책
의 실현이 필
요하다. 양기

표3. 사료원료가격 및 환율동향

품 목	원산지	2000	2001	2002										단위 : C&F, US\$/MT
				1	2	3	4	5	6	7	8	9	10	
옥수수	미 국	113	113	106	105	104	104	113	115	119	131	137	135	
	중 국	105	108	102	103	103	103	103	105	110	117	117	114	
대두박	미 국	233	227	214	210	214	213	217	235	231	229	234	222	
	남 미	207	202	185	172	184	184	184	196	-	-	-	220	
소 맥	인 도	203	210	195	190	190	190	190	190	-	-	-	-	
	카나다	120	119	-	-	-	-	-	-	-	-	-	-	
환 율	E U	118	111	108	105	105	105	105	-	-	112.8	-	113.5	
		1131	1291	1318	1319	1323	1319	1266	1233	1185	1196	1208	1241	